



한덕수 권한대행, 산불피해 복구 추진상황 점검

- 피해자의 주거·생활안정 및 재생기반 마련에 정부 역량 집중
- 풍수해 대비 산불피해 지역 대상 선제적 예방 및 안전 조치

-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(목) 오후 행정안전부 중앙 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북·경남·울산 등 산불피해 지역의 수습 및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.
 - 먼저,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전체적인 피해 수습 및 복구계획을,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,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관계부처로부터 주요 대책을 각각 보고 받았다.
-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산불로 생활기반이 전소된 이재민들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·생활안정 및 재생 기반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복구계획을 수립·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 - 특히, 복구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지원 대책과 소실된 시설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, 영농 재개를 위한 지원, 우기 대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.
-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무상임대, 무상 점검·수리, 할인판매, 구입자금 확대 등 신속한 영농재개를 지원하는 한편, 사과·마늘 등 주요 피해작물에 대한 단가 현실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.
-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과 함께, 특별지원지역 지정 검토,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업 특례 지원 등 경영 위기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.

- 국토교통부는 자력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을 위해 피해지역에 소규모 신축 매입임대주택 1,000호를 공급하고,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통해 주거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.
- 이날 한 권한대행은 “산불 피해의 수습과 복구는 각 부처간, 기관간 업무 영역을 뛰어넘어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.
 - 이어 “아직도 3,700여 명의 이재민이 임시 숙박시설 등에서 머물고 계시므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 복귀를 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”고 지시했다.
 - 특히, “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을 위해 역대 최고의 국민성금이 모금되었다며, 재해구호협회·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달 중으로 이재민들에게 국민성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조치하라”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.
 - 또한, 보건복지부, 환경부 등에 “산불로 집을 잃은 노인분들을 위한 보다 촘촘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, 산불 잔해물로 인한 오염 방지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”을 지시했다.
- 특히, 한 권한대행은 “풍수해 기간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에서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, 이재민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조치를 철저히 추진하라”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.
 - “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위험도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필요한 보강공사를 조속히 착수하라”고 주문하고, “배수로 및 하천 정비, 위험목 제거 등을 통해 풍수해로 인한 각종 피해를 원천 차단하라”고 지시했다.
- 한 권한대행은 “산불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회복에 머물러서는 안된다”고 강조하고, “기후변화 대응, 지역경제 회복, 생태계 복원까지 아우르는 ‘피해지역 재건형 복구’를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마지막으로 “전국의 산불 피해복구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”며, “복구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‘안전’에도 특별히 유념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신강민 (044-200-2346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규 (044-200-2348)
	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	책임자	과 장	박종빈 (044-205-5291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영 (044-205-5318)
	행정안전부 산불피해복구지원단	책임자	부단장	이상원 (044-205-6470)
		담당자	서기관	전병훈 (044-205-6471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